

“인생의 무거운 짐”

■ 이종윤 원로목사

스페인의 격언 중에 예나 지금이나 조용한 집이 없다는 말이 있다. 인간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크고 작은 짐이 있다. 어떤 짐은 눈에 보이나 정말 무겁고 어려운 짐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기 홀로 져야 할 짐이 있다.

남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짐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대신 할 수 없다. 우리는 각각 다른 개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죽음의 고개를 홀로 가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 있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자기에 대한 책임을 자신만이 져야 한다.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심판대 앞에서도 내가 대답해야 한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도 내가 해야 한다. 군중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숨을 수도 없다. 좋은 교회 성도라고 단체적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청교도 신학자 요나단 에드워드의 일기장에 “결단하자 그 대가가 비쌀지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다른 이들이 비록 잘못된 길로 모두 가버렸다 해도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로 옳은 길로만 가게 하소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악함을 자인하고 피조물 됨과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하는 책임적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

서로 져야할 짐이 있다.

이것은 공동체가 지고 있는 짐을 말한다. 사회적, 국가적, 민족적 그리고 교회의 짐을 다른 이들과 함께 져야 한다. 형제나 이웃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과 저주를 하지 말고 그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방법이다. 우리가 남에게 충고할 때 저주나 심판의 자세로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민족사회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길은 자신이 먼저 바른길을 가는 것이다. 한 사람의 모범이 천 마디 논쟁보다 낫다.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은 크리스소스톰 목사를 황금입술을 가진 이라 불렀다. 크리스소스톰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살고 바른 길을 가르침으로 세상이 바로 가게 되고 근심도 염려도 사라지게 되니 사람들은 태양 빛이 비치지 않을지언정 크리스소스톰 목사의 설교가 그치지 않기를 원했다.

약하고 흠이 많고 더러운 인생을 분석 검토한 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그들의 허점을 아시면서 그대로 부르셨고 믿어주고 격려하셨다. 3번씩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 내 양을 치라는 큰 사명을 주신 것도 베드로의 회개한 양심을 믿어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 희생의 법, 자신을 포기하는 겸손의 법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 남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의 말을 하려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이 있다.

의무를 거부했을 때 우리는 양심의 짐, 또는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짐을 내 힘으로는 질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같은 짐을 내게서 가져다가 대신 져주신다. 모세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흥해 앞에서 옮겨 주셨다. 사방으로부터 옥여쌘을 당한 사도 바울의 짐도 하나님은 제거시키시는 대신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은혜로 힘을 주셨다. 우리는 무겁고 힘든 짐을 홀로 지려하거나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자신을 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넘여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든지 그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져 주실 것을 믿고 그에게 맡기고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죄의 짐, 절망, 절망, 불신앙의 짐, 공포, 후회의 짐을 전능자, 전지자, 사랑 많으신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으라.

-한국장로신문 2013년 11월 16일 발취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첫 주, 2021 사명자대회 다섯째 주일입니다.

교회 예배시설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기에, 원하시는 시간에 주일예배와 교회학교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제15대 장로 10명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주일 3부 예배 후부터 5시까지 본당 로비에서 '투표지 교환권'을 배부하므로 찬양예배 입장 전에 교환권을 받으셨다가 공동의회 시간에 투표지교환권을 제출하시고 OMR카드를 받아 투표하시면 됩니다. 공동의회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당회원이 은혜 중에 피택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정상 교회 대면예배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이전처럼 실시간 온라인중계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1107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가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위로의 하나님 ”

■ 고후 1:3-11

성경은 우리의 세월이 짧고 빠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무게가 태산처럼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입니다. 창 47장에서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웠다는 회고입니다. 우리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며 고통과 피로를 호소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위로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시 94:19)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박해와 고난, 인생의 비애에 대하여 토로합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이었습니다.

1. 위로의 하나님

바울은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3,4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야 할 만큼 우리 인생들에게 상처와 눈물, 애통이 많다는 뜻입니다. 욕기에서 욕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욕을 보고 친구들은 말없이 눈물 흘리며 7일 주야를 그의 곁에 머물러 있었는데, 말 없는 눈물이 욕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마 5:4)이라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첫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토설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이며, 둘째는 이 위기의 바닥에 깔고 은밀한 죄가 있음을 깨닫고 가슴이 미어지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받으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2. 위로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는 자로 살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많은 이웃들이 누군가의 위로와 따뜻한 말 한 마디를 갈급하게 원하지만, 우리에게 마음을 나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에게는 이 위로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4절) 바울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통해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날도 주님의 위로가 넘쳤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행 23:11) 때마다 주님은 바울을 위로하셨고, 이 위로에 힘입어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그 능력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환난을 통해 배우는 것

바울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며, 둘째는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왕상 19장에서 엘리야의 지쳐 쓰러진 모습이 소개됩니다. ‘..로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왕상 19:4)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모습은 무엇 때문입니까? 1)많은 일들이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2)권력과 맞서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3)외로움이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왕상 19:5-6) 하나님께 사랑의 위로를 얻었던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고, 사역을 향해 다시 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슬픔이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이 평탄하고 무사안일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한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때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위로가 우리 영혼을 채우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안용근 목사	최광성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최형열 장로
III 오후 2시	조동수 목사	조동수 목사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73:28...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63(사145)... 다 함 께
-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찬 송 Hymn413(470)...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후 1:3-11...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 설 교 Sermon“위로의 하나님”... 손달익 목사
- * 찬 송 Hymn418...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련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 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 이시로다(고후 1:4)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양예배

오후 5시 ·인도: 전재홍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시 43:5 인 도 자
- 찬 송 284(206) 다 함 께
- 기 도 장상국 집사
- 성 경 행 9:1-9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 “왜 나를 박해하느냐?” ... 설 교 자
- * 찬 송 295(417) 다 함 께
- * 축 도 설 교 자
-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 I 부 오전 11시
- II 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 기 도 ... I 부: 백정숙 권사 II 이봉선 권사
- 부: 성 경 계 21:2 인 도 자
- 찬 양 대
- 찬 양 설 교 자
- 설 교 ... “사명자의 4가지 준비”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 설 교 손달익,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 모임

1. 한나 전도회 총회 / 7일(주) 3부 예배 후 202호
2. 공동의회 소집
 - 안건 : 15대 장로 선거, 원로장로 추대, 피택집사 추인
 - 일시 : 오늘 찬양예배 후
 - 장소 : 본당
3. 정기당회 / 11월 10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402호

◆ 알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정부의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교회 대면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429명	396명	1,825명	435명	1,990명

무서운 사람들

맹수나 재난은 두렵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스리는 인간이 더 무서운 존재다. 인간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섭다.

초대교회 당시 지위도 재물도 없는 무명의 사도들이 당대의 세도가나 지혜자들을 모조리 굴복시켜 세상을 그리스도화 했다. 무엇이 그들에게 그 같은 힘이 되었을까. 부정할 수도 말살시킬 수도 없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사흘 안에 다시 사셨고 사십 일 만에 승천하셨고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진리를 목숨보다 더 큰 사실로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하고 행한 복음과 일들이 모두 흠 잡힐 석 없는 정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비록 적은 수였지만 상하가 일체였고 안과 밖이 한마음이었으며 사도와 평신도가 한 덩어리 되었기 때문이다.

불로 태우거나 물로 씻겨지지 않을 진리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약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심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